

전라북도 최초! 유일! 마취하 전기자극치료 (M-ECT)

이제는 마음사랑병원에서!

심한 우울증, 양극성장애, 조현병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을 위한
국제적으로 안정성과 효과가 입증된 치료로 전라북도에서는 마음사랑병원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떤 질환에 효과적인가요?



심한 우울증



양극성장애 (조증)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긴장증

치료효과는 언제쯤 나타나나요?

전기자극치료의 효과는 즉각적이지 않지만, 많은 환자들이 2-3회의 치료를 받고부터
증상의 호전을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일주일에 2~3회, 경과에 따라 5~10회 시행, 20~30분 소요

전기자극치료를 우선적으로 선택해야 할 경우

- 약물 등 기존의 치료로 큰 호전이 없는 경우
- 빠른 증상 호전을 필요로 할 때
- 약물 부작용으로 인해 약물 사용이 어려운 경우
- 약물의 효과가 미미한 경우
- 난폭한 행동을 보이거나 자살 위험성이 높은 경우
- 식사를 거부하거나 탈진 상태에 이른 경우
- 임신으로 약물의 사용이 어려운 경우



마음 사랑

2021 가을호
VOL.94

마음사랑 소식지는 열린 마음, 밝은 마음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고 싶은 우리 모두의
바람을 담았습니다.

전라북도 마음사랑병원



[건강 길라잡이]
2030 MZ세대
왜 불안한가?

[정신건강 칼럼]
욕구를 해결하라

[열정 36.5]
우리가 만드는
아름다운 병원



대통령이 칭찬하신
마음사랑병원



한국서비스품질
우수기업 인증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 인증



여성부 인증



남녀고용평등
대통령령상 수상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인증



노사문화유공 대통령표창
노사문화 우수기업 인증



평생학습대상
우수상 수상



가족친화
우수기업 인증



근로자건강증진사례
우수상 수상



기업학습 우수사례 기관 선정
노사 한누리상 수상



보건복지부인증
의료기관

마음사랑 소식지는 매년 봄과 가을에 발행됩니다.
 병원의 소식이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본원 홈페이지와 블로그를 방문하시면
 자세한 소식을 접하실 수 있습니다.



CONTENTS

2021. 09. VOL.94

인사말

여는 글 : 너도 답답했구나 04

건강

건강길라잡이 : 2030 MZ세대 왜 불안한가? 06
 정신건강 칼럼 : 욕구를 해결하라 08

치료

특집 : 2021년도 인권보고서 발간에 맞춰 마음사랑병원이 드리는 약속 10
 회복프로그램 : 술 생각을 끊어준 나의 작고 반짝이는 취미 12
 치료진 : 정신건강간호사로서의 보람 14

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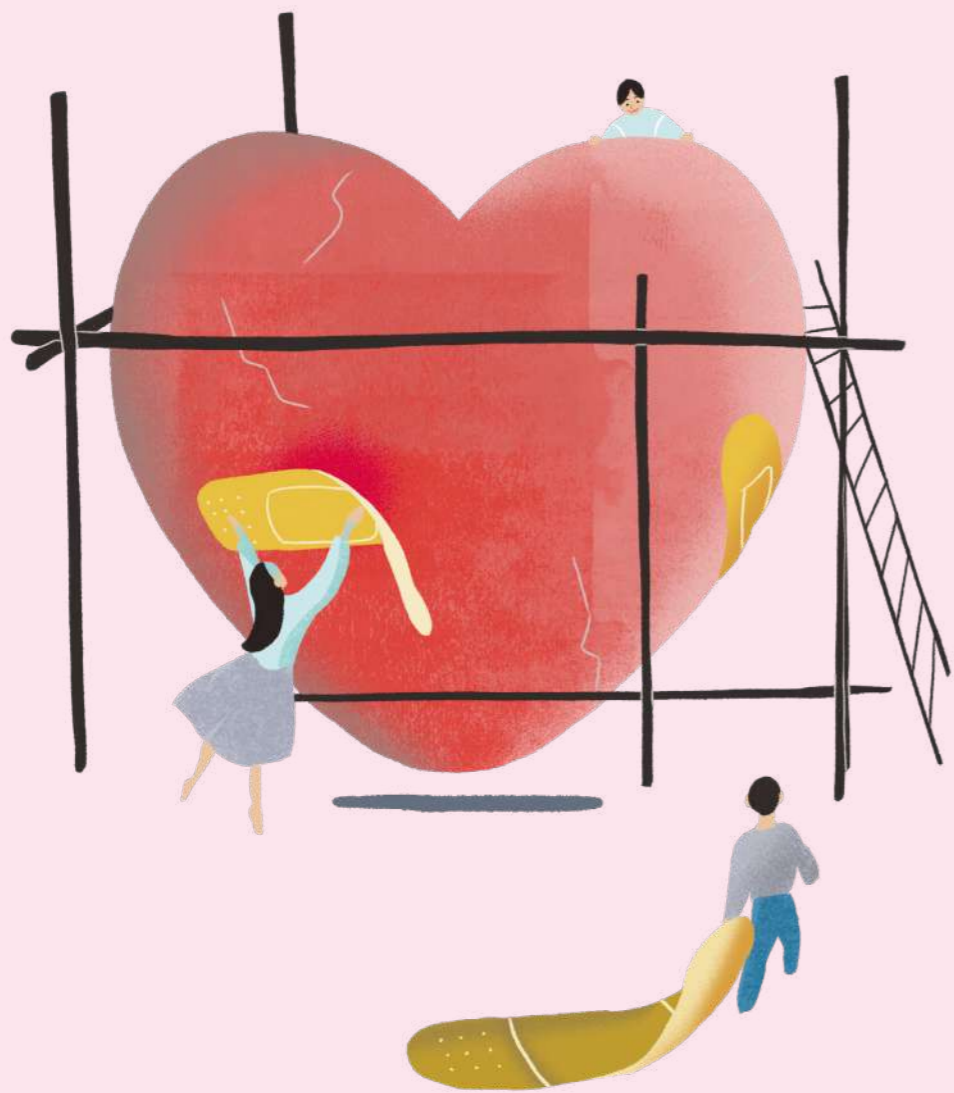
휴 : 영화이야기(마네) 16

스토리

가족이야기 : 절망의 문턱에서 만난 희망! 마음사랑 가족교육 18
 마음나누기1 : 미래를 보듬어줄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생 20
 마음나누기2 : 사랑의 시간으로 바뀌어가는, 전인화교육 30회기 의미 22
 열정36.5 : 우리가 만드는 아름다운 병원 24

뉴스&안내

마음사랑뉴스 : 뉴스 / 재단소식 26
 Information : 가족교육 32
 : 셔틀버스안내 33
 : 마음사랑후원회 34
 : 심신치료센터 35



너도 답답했구나

글 / 김성익이사장

이게 뭐지? 차의 시동을 걸고 목적지를 입력하니 도착시각이 예상보다 한 시간이나 늦게 나타납니다. 아뿔싸! 시간계산 착오로 출발을 한 시간이나 늦게 하다니.... 명색이 2박 3일 동안 봉사를 하겠다고 가는 자리인데, 시작하는 첫날 늦는다면 행사 진행에 도움은커녕 오히려 폐를 끼칠까 봐 마음이 금세 조급해졌습니다. 수도권 아침시간이라 차들은 그저 밀리고, 터널 속 앞에 가는 대형트럭은 왜 그리도 늦게 가는지. 터널에서 빠져나올 때 보니 트럭 앞에 낡은 봉고가 서행했던 것을 알게 되었지요. 순간 제 마음에서 나온 한마디는

‘너도 답답했겠구나.’

목요일 오후 백화점. 비교적 한산했어요. 에스컬레이터 주변에서 25세는 넘어 보이는 남자에게 엄마로 보이는 중년 부인이 잔뜩 화난 목소리로 “그래! 사줄게! 사주면 될 거 아냐!”라며 소리를 지르더군요. 아들은 대꾸도 안한 채 제 뒤편에서 에스컬레이터를 내려오며 손잡이를 광광 내려쳤어요. 마치 제 뒤통수라도 곧 내려칠 것 같아 뒷머리가 움찔했지요. 아 뭔가 많이 답답한가 보구나. 이 상황에서 그 어머니는 또한 얼마나 답답할까? 아마 집에서 방에 틀어박혀 식구와 대화도 안 했을 것 같은 아들이, 마지못해 엄마와 백화점까지 왔다가 또 말이 통하지 않음을 확인한 것 같았어요. 아! 서로가 엄청 답답하겠구나.

11살 강아지 사랑을 아기 때부터 키우고 있지요. 4~5년 전부터 뇌의 이상으로 앞을 전혀 보지 못하고 냄새 또한 말지 못해요. 소리가 어디서 나는지 방향감각도 없어지니 어려서부터 늘 도도하던 녀석이 기가 팍 죽어지냅니다. 발병 초기엔 여기 쿵 저기 쿵 사방에 부딪치니 마음이 무척 안타까웠는데 이제는 나름 적응하고 살아가요. 좋아하던 산책도 싫어하고 자꾸 잠만 잔답니다. 정에 끌려 사람 먹는 음식을 잘못 줬다가 췌장염을 두세 번 앓았어요. 그런 날에 퇴근해 보면 피 섞인 곱똥을 거실과 화장실 곳곳에 질펀하게 싸두어 치우느라 힘든 마음이 앞서지만, 빈집에서 홀로 아파 고생했을 강아지를 생각하면 안쓰러움이 더 커지지요. ‘아무도 없는데 얼마나 힘들었을까...’ 낮에도 자고 밤에도 자니, 한밤중에 자주 깨어 물도 먹고 쉬도 해요. 자다 깨는 밤 시간엔 더 멍해져서 방향감각이 없으니 열두 시든 두시든 세시든 제가 일어나 챙겨줘야 해요. 끼깅거리면 ‘왜 그래 ~~ 제발 잠 좀 자자’ 짜증이 내려다가도 강아지는 또 얼마나 답답할까 생각하면 삶은 마음이 속 들어가지요. 네가 더 답답하겠구나.

우리 모두는 살면서 이런저런 어려움을 자주 겪습니다.

그럴 때 <‘불쌍한 나’라고 자신을 동정하는 대신 자신만이 아닌 모두의 삶이 힘든 것임을 인식하는 것을 자기연민>이라고 한답니다. 내 마음이 스트레스로 답답할 때 나를 아프게 하는 상대도 지금 엄청 답답해 힘들어하고 있음을 생각하노라면 상대에 대한 미움과 서운함 등이 슬그머니 사그라지는 듯해요. 나만 힘들게 아니라고, 상대도 나만큼 답답해 힘들어 하고 있다고, 우리 모두 아프다고, <고통은 우리 모두 살아가며 겪는 삶의 일부>임을 깨달으며 아픈 마음을 다독다독 그대로 받아들여 우리 함께 순간순간 편안함을 찾을 수 있길 바라봅니다.

매미소리가 사방에 가득한 여름이 지나고 보름달 휘영청 하늘에 가득한 밤, 마음을 하늘만큼 확장하며 행복한 가을 맞으시길 두손 모읍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2030 MZ세대 왜 불안한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보영 진료과장

현대 2030 청년 세대는 1980년대 초부터 2000년대 사이에 태어난 밀레니엄(MZ)세대를 말합니다. 이들은 정보기술(IT)에 능통하며 고등 교육을 받았고, 경제적 풍요로 여가생활과 자아실현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관계에서는 타인의 취향을 인정하고, 재미를 중시하며 그 어떤 세대보다 자율적이고 주체적인 삶을 추구합니다. 반면에 2030 젊은이가 본격적으로 사회에 진출한 2000년대는 IMF 이후 질 좋은 일자리가 급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경제적 여유를 누렸던 과거와 다르게 각자도생의 길을 찾아야 하는 고용불안정 시대에 사회에 진출하게 된 것입니다.

2030 청년 세대 왜 불안할까요?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연일 급등하는 아파트 가격은 근로소득만으로 자산 증식이 절대 불가능하고, 최소한의 기본 생활도 유지 못할 것 같은 위기감을 고조시켰습니다. 인생의 평범한 경로라고 여겨지는 연애, 결혼, 출산, 인간관계, 내 집 마련을 애초에 포기했고, 잘못 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불안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또한 부모의 배경이 개인의 능력이 되는 세상에서 불공정한 느낌, 상대적 박탈감, 가난에 노출되며 무기력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주어진 여건에서 행복을 추구하고 불안을 낮추는 방향으로 행동합니다. 현대 2030 청년들은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합니다. 예를 들면, 빨리 안정된 직장을 갖기 위해 고교시절부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공시생, 어차피 티끌 모아봐야 티끌이니 돈을 모으기보다는 취미와 소비를 중시하는 율로족, 아이에게 이런 불안을 물려줄 수 없다며 2세를 갖지 않는 덩크족, 자아실현과 삶의 다양한 경험을 위해 최대한 빨리 돈을 모아 40대 초반에 은퇴하기를 원하는 파이어족 등입니다.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은 이들이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보여줍니다. 이러한 삶의 방식은 급격하게 변한 사회에 적응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는 선택입니다. 하지만 일부 기성세대는 이들을 도전정신이 부족하고 삶에 열정이 부족한 세대로 오해하며 바라보기도 합니다.

최근 젊은 세대에 불어닥친 주식투자와 코인 열풍은 일종의 불안을 다스리기 위한 행동입니다. 예부터, 시대마다 신분 상승 사다리가 있었습니다. 조선시대는 과거급제, 5-60년대는 창업과 사업, 7-80년대는 고등고시 패스를 한 판검사, 그리고 의사 등 전문직이 사회에서 성공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현대 자신들에게 주어진 기회가 주식과 가상화폐 투자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투자로 돈을 벌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자신만 시기를 놓쳐 소외되는 것은 아닌지 불안해지며 다수에 편승하여 투자에 뛰어듭니다. 또한 IT와 디지털에 능숙한 이들은 나스닥, 비트코인 투자가 자신의 지식을 기반으로 기성세대와 경쟁하며 공정한 부의 재분배를 이루는 수단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주식과 코인 투자가 투기적으로 변질되어 젊은이들의 시간과 돈을 빼앗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2030 젊은 세대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2030 청년 세대에게 나타난 투자 광풍은 일자리가 부족하고 청년의 안정적 삶이 보장되지 않는 사회 시스템 때문입니다. 일자리가 늘어나고, 근로소득으로 자산 증식이 가능한 시스템이 구현된다면, 무분별한 투자가 줄어들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춰줘야 합니다.

또한 기성세대는 청년에 대한 바른 이해와 따뜻한 시선을 가져야 합니다. IMF 이후 경제적 곤란을 겪어본

기성세대는 젊은 세대를 경쟁자로 바라보고 두려움으로 경계하며 회피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미래를 책임져야 하는 젊은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사라진 것입니다. 젊은 세대는 IT를 기반으로 기성세대가 따라갈 수 없는 창의력과 개척정신을 갖추고 있습니다. 상호 인격 존중과 협동을 기반으로 한 성숙한 사회가 기성세대 및 청년 세대의 불안을 낮춰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은 자기 주관 없이 시대의 흐름을 쫓아가서는 안 됩니다. 닦을 내린 배가 조류에 떠내려가지 않듯이, 시류에 흘러가지 않기 위해서는 각자 인생의 가치와 목표를 설정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방향을 잃고 표류하는 배가 풍랑을 만나면 침몰하듯이, 삶에 목표와 방향이 없다면 느닷없이 불안에 잠식될 수 있습니다.

젊은 세대가 불안한 것은 당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잘못이 절대 아닙니다. 만약 불안이 찾아왔다면 주변의 도움을 구하고 저희 같은 전문가를 찾아오기를 권장합니다. 그리고 여기 우울·불안할 때 읽어보면 좋은 두 권의 도서를 추천합니다.

추천 도서

「우울할 땐 뇌과학」

「심리학이 이렇게 쓸모 있을 줄이야」



욕구를 해갈하라



이금단 임상심리실장

어릴 적 지독한 가뭄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산골짜기 다랑논에 모내기를 한 후 왕가뭄이 들어 논바닥이 거북 등껍질처럼 갈라지고 어린모는 속절없이 타들어 갔습니다. 어린 마음에도 등 따갑게 짹짹 내리쬐는 햇볕이 야속하기만 했고, 하늘을 연신 올려다보며 엄마 따라 한숨을 내쉬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더 이상 어디에서도 물을 끌어올 수 없었던 탓에 그해 벼농사는 포기하고 때늦게 콩을 푹푹 마른 땅에 심었습니다. 한창 더위가 여물어가던 유월 한낮 태양의 뜨거움보다 마른 땅에 내리쬐던 호미에서 푹푹 튀던 불꽃이 더 다가왔던 기억이 여실합니다.

왕가뭄은 사람에게도 존재합니다. 분노, 화, 적개심, 질투심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러한 감정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한 결과는 뉴스에서도 심심찮게 접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식어 자신을 떠난 상대방의 자녀를 해치고, 자신의 사랑을 받아주지 않는다고 폭행을 하고, 자신의 젊음을

불태우며 노는데 방해가 된다고 어린 자식을 내팽개치는 것도 모자라 결국 죽게 만듭니다. 이들 가해자들의 성격 바탕에는 분노와 적개심, 공격성이 상당히 존재했을 것이며, 이를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 알지 못하여 사회에 반하고 윤리에 어긋나는 극단적인 행동을 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왕가뭄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어떻게 관리하여 불행한 상황을 막을 수 있을까요?

‘비폭력 대화’의 저자인 마셜 로젠버그 박사는 감정의 근원은 욕구라고 보았습니다. 우리가 밭에서 자라고 있는 고구마를 볼 때 우리 눈에 먼저 보이는 것은 고구마의 잎과 줄기입니다. 땅을 파서 그 줄기를 따라가야 진짜 고구마를 만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잎과 줄기는 감정이고, 고구마는 욕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잎과 줄기만 흔들며 고구마라고 외치면 상대방이 농부나 식물 전문가가 아닌 이상 고구마임을 알기 어렵습니다. 우리 역시 자신의 불쾌한 감정을 한껏 역기능적으로 드러내며 자신의 속마음, 즉 욕구를 알아달라고 하면 상대방이 그 속을 알 길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고구마를 말할 때 잎과 줄기 대신 고구마를 내밀어야 하듯 내 마음을 알아달라고 할 때 욕구를 알아차려서 표현해야 합니다. 인간의 욕구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자신의 꿈과 목표, 가치관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싶은 것을 비롯하여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편안해지고 싶고, 건강하고 싶고, 소통하고 싶은 것 등이 있습니다.

분노와 화, 적개심, 공격성, 질투심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 왕가뭄이라면 그 아래에 뿌리내리고 있는 인정, 사랑, 평화와 같은 욕구는 우물이라고 보면 됩니다. 왕가뭄으로 메마른 천수답의 작물은 하늘의 도움을 받아야만 해갈될 수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의 욕구라는 우물은 우리 자신이 스스로 팔 수 있습니다. 불췌 화가 올라오면 잠깐 멈추고, 욕구를 들여다봅시다. “아, 지금 나는 이 정도면 충분히 잘했다는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구나. 그걸 몰라줘서 이렇게 화가 나는 거야.” 상대방이 알아서 내 욕구를 채워주길 바라는 시간에 자신의 욕구를 스스로

알아차려본다면 욕구가 충족되지 못해 생겨나는 불쾌한 감정들이 맑은 물에 희석되어 우리 내면에서 찰랑거릴 것입니다.





2021년도 인권보고서 발간에 맞춰 마음사랑병원이 드리는 약속

글 / 신정은 간호부장

누구나 몸이 아프면 병원을 자유롭게 이용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아픈 이들은 어떨까요? 드라마나 영화에서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과정을 거칠고 비인권적으로 묘사하는 장면은 정신의료기관종사자로서 뭔가 목에 걸린 듯 불편한 느낌이 들어 그 의미에 대해 숙고하게 됩니다. 이런 미디어를 접하는 일반인들에게 정신병원에 대한 부정적 인상이 각인되는 순간이 될 것 같아서입니다. 주위의 시선을 의식하며 어렵게 상담하는 사례들을 보면, 편견 없이 정신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신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과 더불어 관련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일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1년 2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신장애인 인권상황 및 개선방안을 담은 「정신장애인 인권보고서2021」을 발간했습니다. 보고서와 함께 국내 정신장애인이 처한 현실은 매우 열악하여 정신장애인의 인권 수준이 모든 영역에서 향상되어야 함을 총리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하였고, 정신장애인 인권 증진을 위한 4대 기본 원칙과 7대 핵심 추진과제 그리고 27개 정책 과제를 정부에 제시하였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정신장애인 인권보고서2021」 발간에 맞추어 마음사랑병원의 인권증진을 위한 노력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본원은 10여 년 전부터 정신건강증진시설 인권교육기관으로 선정되어 정신보건시설 종사자의 필수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매년 3명의 인권강사를 양성하여 지역의 정신장애인 인권보호를 위한 공공기관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인권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지역의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 해소와 인식개선을 위해 공공보건의료사업으로 매년 약 30회의 정신건강 순회상담과 정신장애인으로 구성된 지역사회 자원봉사단(선행봉사단, 다운누리 봉사단) 활동을 적극적으로 실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신건강사업 지침에 따라 모든 직원이 연간 4시간 이상 인권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치료하는 과정에서 인권적 이슈에 민감한 당사자 관점에서 설명하고, 존중하고, 정보를 제공하여 자기결정권을 강조하는 인권기반적인 절차를 모든 직원들이 인식하고 실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환자의 인권을 존중하여 적절한 절차에 따르면 치료와 입원을 거부하거나 회복이 덜 된 상태로 퇴원하고 복약을 중단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재발하여 가족과 당사자 모두 힘든 과정을 반복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환자의 인권을 우선시하다가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는 것은 환자와 가족, 사회 모두에게 힘든 일입니다.

반대로 개인의 존엄과 자율성을 제한하는 치료가 강조되는 것 역시 적절하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므로 현장에서 의료진들은 매 순간 회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인권적인 치료 방안을 고민합니다. 고객상담 부서에서는 사례마다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여 스스로 최선의 선택을 하도록 도우며, 고객들을 만나는 점점의 직원들은 마음이 아프신 분들이 존중감을 느낄 수 있도록 배려합니다. 현재는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인해 면회와 외출에

제한이 있어 가족과의 영상통화, 직원과 동반산책 등 다양한 이벤트로 고립감을 줄이기 위해 노력합니다. 또한 회복이라는 보편화된 담론이 뿌리 깊게 자리하기 위해 QR(Quality Rights)을 도입하여 회복과 역량강화, 인권에 기반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 마음사랑병원에서도 이미 정신질환으로부터 회복을 경험하고 일정 기간 동안 인증된 교육을 이수한 '동료지원가'가, 입원이나 퇴원과정에서 환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회복을 경험한 선배가 그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어떻게 하면 좋은 치료를 받을 것인지, 어떤 절차가 있는지, 집에서 가까운 기관은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스스로의 경험에 비추어 설명해 주는 것이 치료진보다도 더욱 마음에 와닿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권은 항상 가까이 그림자처럼 존재하여, 숨을 쉬듯 누군가의 간절한 마음에 친절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소통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인권친화적이라고 믿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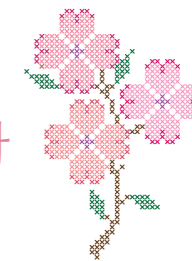
인권위는 「정신장애인 인권보고서2021」가 정신장애인의 인권을 증진하고 향상하는 데 중요한 청사진이 되길 바란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마음사랑병원도 정신장애인의 인권향상을 위해 실행 중인 다양한 노력을 당연한 의무로 여기고 있습니다. 인생의 가장 어려운 한순간을 지나고 있는 분들에게 마음사랑병원이 든든한 디딤돌이 되어드리기를 약속합니다.

동료지원가

회복 과정을 경험한 정신장애인 중 자신과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동료의 회복에 기여하며 함께 회복하는 사람입니다.



보석십자수 신인작가 데뷔전 참여 소감



조OO 신인작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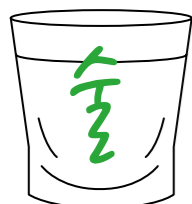
살면서 무언가에 집중해 본 것은 오직 술뿐이었습니다. 술을 입에 대기 시작하면서 제 이름 석자보다는 알코올 중독자 또는 비속어로 불릴 때가 더 많았습니다. 퇴원과 재입원을 반복하며 느끼는 자책감과 우울감, 그 속에서도 술 생각을 하는 제 자신이 너무나 싫었습니다. 마주치는 사람마다 시비를 거는 것 같고 화가 나 대부분 침대에서 생활하며 사람을 피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간호사 선생님들의 지속적인 권유로 못이기는 척 시작한 보석십자수가 저를 바꿔놓았습니다.

아주 작은 큐빅 하나하나에 집중하다 보니 술 생각은 나지 않게 되었고 술 외에도 나를 즐겁게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힘들지만 작품이 하나씩 완성되어갈 때마다 느낀 성취감은 다시 술을 끊을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책임간호사님이 작가로 데뷔할 수 있는 전시회를 제안했습니다. “내가 술이나 마실 줄 알지 무슨 작가여”라며 통명스레 말하기도 했지만 전시회 포스터가 붙고 조명아래 반짝이고 있는 제 작품들을 보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언가가 가슴에서 울컥 거리고 있었습니다.

전시회를 감상하고 온 다음날 “조 작가님 작품 잘 봤습니다.”라며 건넌 주치의 선생님의 인사에 더 이상 알코올 중독자로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크게 들었습니다. 그리하여 평소에 미안했던 딸에게 작품 한 점과 함께 사과의 마음을 담은 편지 한 통을 보냈습니다. 마지못해 떠밀리듯 시작했던 취미가 술을 끊을 수 있는 한줄기 희망이 되었고,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꿈을 꾸게 해주었으며 저를 증오하던 딸과 화해할 수 있는 다리가 되어 주었습니다.

신인작가 데뷔전 ‘보석십자수 전시회’는 알코올 문제로 입원해 있는 환자분들이 주축이 되어 ‘술에서 벗어나 회복에 집중할 수 있다’라는 희망을 담은 전시회입니다. 이번 전시회를 통해 많은 환자분과 직원들이 따뜻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생각을 끊어준 나의 작고 반짝이는 취미



글 / 햇살클리닉 이희준 책임간호사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집에서 다양한 취미를 즐기는 것이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요즘 집에서 하는 집콕취미와 인터넷으로 보고 배우는 온라인 클래스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햇살클리닉에서도 환자들에게 취미 생활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인기 있는 활동은 ‘보석십자수’입니다. 마음사랑병원 환자분들이 6개월간 정성껏 작업한 보석십자수 전시회를 소개합니다.

‘알코올 중독자’ 하면 어떤 이미지들이 떠오르시나요?

‘의지박약’, ‘화가 많다’, ‘잡은 단주 실패로 인한 낮은 자존감’이 가장 먼저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실제 병동에서 만나는 알코올 중독자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소한 일로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고 잡은 단주 실패로 자괴감에 빠져 우울감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보석십자수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환자들에게 일어난 가장 큰 변화는 다툼이 줄었다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작품 활동에 집중하면서 인내하는 방법을 몸으로 익히고, 스트레스가 해소됩니다. 또한 완성된 작품이 쌓여갈 때마다 성취감과 함께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게 되며, 가장 중요한 점은 건전한 취미생활에 집중하면서 술 생각을 멀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신건강간호사로서의 보람

글 / 낮병원서 지혜 수간호사

간호사의 또 다른 이름, 정신건강간호사

간호대학을 다닐 당시, 졸업을 하면 그저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의 모습만 생각했습니다. 실습 시간 삼분의 이 이상을 종합병원에서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간호사의 또 다른 이름, 정신건강간호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신건강간호사란?

간호사 면허를 소지한 자가 국가에서 위탁한 교육기관(국공립병원)에서 이론 및 실습 등 1,000시간 이상의 수련과정을 마치면 정신건강간호사 2급이 주어집니다. 이후 현장경력 5년이 인정되면 1급이 주어집니다. 마음사랑병원은 국가가 위탁한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으로 매년 지역사회 인재를 양성하고 있으며, 이렇게 수련된 전문요원들은 간호 활동을 더욱 전문적으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마음사랑병원의 정신건강간호사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간호사라고 하면 대부분 병동에서 간호를 제공하는 모습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정신건강간호사는 보다 다양하고 역동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병동에서 정신요법을 기획·진행·평가하고, 낮병원에서는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정신재활서비스를 제공합니다.

66



햇살클리닉 유슬기 정신건강간호사

3교대 근무를 하는 직무 특성상 신체적·정신적으로 많이 지치는데,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 후 주간 정신재활 프로그램 업무를 담당하게 되면서 몸과 마음이 더 건강해진 것 같습니다. 환자를 보는 시각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환자를 진단과 증상 위주로 보았다면, 현재는 환자가 좋아하고 원하는 것을 먼저 생각할 수 있도록 관점이 많이 변했습니다. 환자에게 간호를 제공할 때 임상적 관점과 전인적 관점이 통합되면서 향상된 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99

66



사랑클리닉 정의성 정신건강간호사

간호사로 7년째 근무 중이며, 현재는 정신건강간호사로 주간 정신재활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정신재활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게 되면서 관련 공부를 많이 하여, 환자를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 간호와 전문요원 업무를 병행하게 되며 훨씬 향상된 정신건강서비스 제공과 병동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들에게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99

66



심신치료센터 최훈석 정신건강간호사

담당하고 있는 병동 환자의 대부분이 급성 초기의 젊은 환자분들입니다. 환자분들 특성상 집중팔구 치료 의지와 병식이 없어서, 정신재활 프로그램의 필요성과 흥미를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 제게는 가장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정신재활 프로그램을 시행하기까지 두려움과 부담감이 앞섰지만 꾸준한 프로그램 진행과 깊은 면담을 통해 환자와 형성한 *라포는, 치료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동기부여와 자신감으로 환자분들을 적극적으로 돕고 싶습니다.

라포 : 상담·치료·교육을 통해 신뢰와 친근감으로 이루어진 인간관계를 뜻하며, 라포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감정, 사고, 경험을 이해할 수 있는 공감대 형성이 필요합니다.

99

66



중독치료센터 김정은 정신건강간호사

제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환자분들이 기다릴 때마다 큰 보람을 느낍니다. 매일 아침 일찍부터 진행되는 프로그램에 관한 질문과, 프로그램 종료 후 듣는 긍정적인 피드백은 큰 힘이 됩니다. 병동에서 주로 간호업무를 담당해왔던 저에게는 전문 요원으로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하는 것이 부담스러웠지만, 오히려 지금은 삶의 전환점이 되어 업무에 임하는 태도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환자분들과 더욱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고민하게 되고, 큰 도움이 되었다는 피드백을 받으면 더 잘하고 싶은 욕심이 생겼습니다. 이러한 노력과 변화된 모습이 더 좋은 치료 서비스 제공과 발전으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99



폴리베르제르의 바 by 마네

글 / 기획팀 김주빈

1882년 파리 살롱에 전시된 이 그림은 마네의 마지막 작품입니다. 그는 작업 당시 병에 시달려 그림을 그리는데 불편을 겪었지만, 거대한 캔버스의 모든 부분은 그의 회화 세계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상주의에서 10년 넘게 다루어졌던 '도시의 여가생활과 볼거리' 주제에 대한 정점이 극명하게 드러난 작품을 소개합니다.

작품이야기

이 그림은 마네의 최대 걸작이자 말년의 작품으로 1882년에 살롱전에 출품되었습니다. 배경은 파리의 유명한 바인 '폴리 베르제르' 인데, 동시에 2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파리의 유명한 사교장이었습니다. 그림의 구성은 중앙에 여종업원이 있고 그녀의 뒤에 배치된 거울에 홀 안의 풍경과 그녀 앞에 서 있는 남성의 모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색채와 질감은 자유로운 붓 터치로 표현되어 있으며, 당시 사회의 모더니티와 회화의 모더니티가 모두 담겨있습니다. 여종업원의 눈길은 바 안의 흥청거림과는 달리 공허해 보입니다. 떠들썩한 손님들의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삶의 불안과 고독 그리고 소외를 느끼고 있는 듯 합니다.



그림의 상단을 보면 곡예사의 그네 타는 발이 보입니다. 이를 통해 내부에서 서커스를 할 정도로 규모가 컸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무희와 가수가 무대에서 춤과 노래를 하고, 서커스 공연도 하는 주점으로 예상됩니다.

여종업원이 남성과 얘기를 나누는 장면이 거울에 비추어지고 있습니다. 거울에 비추어지는 이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사실 그림 상의 인물들의 배치가 왜곡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화가에 의해서 그림 속의 구도가 재구축되었으며 두 가지 시점으로 그려졌습니다. 이를 통해 회화의 자율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테이블 위에 있는 과일과 꽃 그리고 술병들을 보면 독립된 정물화로 보아도 손색이 없습니다. 마네는 전통을 차용하지만 전통적인 그림의 기법을 해체하는 새로운 그림을 그려왔습니다.

작가이야기

근대미술의 선구자 중 한 명이었던 마네는 1832년 프랑스 파리의 유복한 법륜가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려서부터 미술에 재능을 보였지만 아버지가 반대하자, 견습 선원이 되어 남미를 향해했다가 해군학교에 낙방한 후, 토마 쿠튀르의 화실에 등록하며 화가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1860년대 마네의 초기 화풍은 벨라스케스의 스페인 회화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1859년, 첫 입선 이후 지속적인 출품에도 불구하고 번번이 낙선했습니다. 근대 도시로 변모해가던 파리와 파리 사람은 마네 그림의 가장 중요한 주제였으며, 보들레르가 말한 '근대 생활의 화가'의 전형이 마네였습니다. 1863년 <풀밭 위의 점심식사>가 낙선전에 전시되었을 때, 신화나 역사가 아닌 지나치게 현실적이고 사실적인 주제, 평면적인 기법, 부르주아의 위선을 꼬집는 도발적인 내용으로 파리의 언론과 평론계, 관람객들의 혹독한 비판을 받았고, 이러한 비난은 1865년 살롱전에 출품된 <올랭피아>에도 이어졌습니다. 반면에 모네, 피사로, 시슬레 같은 젊은 화가들은 마네의 그림에 감탄했고, 마네는 새로운 전위 미술가 그룹의 중심인물이 되었습니다. 특히 에밀 졸라는 1867년 <피리부는 소년>이 살롱전에서 낙선하자 마네를 옹호하는 평론을 썼습니다. 말년에는 레지옹 도뇌르 훈장을 받았고 <폴리베르제르의 바> 같은 걸작을 남기며 1883년 파리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절망의 문턱에서 만난 희망! 마음사랑 가족교육

글 / 사회사업팀

가족 중 누군가 몸이 아프게 되면 온 가족의 시간은 그를 중심으로 흘러갑니다. 환자를 곁에서 돌보기 위해 생업을 중단하거나 만만치 않은 치료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특히 마음을 앓는 정신질환은 약이나 수술로 단기간에 완치될 수 없기에 가족의 고통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치료 기간이 길어질수록 극심한 우울감을 호소하거나 자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가족을 만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가족을 힘들게 하는 것은 정신질환에 대한 주위의 불편한 시선입니다. 더러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가족이 해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난관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여기 마음사랑에는 위기를 극복하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어 가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바로 매일 가족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환자 회복에 가족의 지지가 중요함을 알기에 교육을 통해 정신질환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얻고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며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않습니다.

마음사랑 가족교육은 단지 환자의 회복만을 위한 모임이 아닙니다. 환자를 돌보기 위해 마치 마라톤을 하듯 외롭고 긴 여정을 감내해야 하는 가족의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기도 합니다. 가족이 먼저 회복돼야 환자의 회복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매일 쉽지 않은 발걸음을 병원으로 옮기는 가족들! 가족교육에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는 함께 치료를 받고 있는 다른 환자들의 회복을 위해서도 물심양면 지원을 아끼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나누는 여러분들 중 2015년 치료를 시작해 6년째 회복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 환자의 가족 이야기를 소개해 드립니다.

“처음엔 남편과 이혼도 생각했지만 건강이 좋지 못한 남편을 버리고 간다는 욕을 들을까 겁이 났어요. ‘조금만 나아지면, 조금만 괜찮아지면 그때 헤어져야지!’하는 마음으로 버텼습니다. 한편으로는 ‘왜 진작 병원에 오지 않았을까’ 하는 후회와 어린 딸들 생각에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지금은 남편이 저에게 고맙다고 하지만 저도 남편에게 고마움을 느껴요. 자신도 힘들 텐데 타의 모범이 되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저를 감동시킵니다. 환자 한 명에게 만이라도 회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고 싶다면 일요일에도 도움이 필요한 곳으로 달려갈 때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이 모든 것이 마음사랑병원 가족교육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져 치료를 지속하기 어려웠을 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고 남편뿐만 아니라 저의 상처도 따뜻하게 보듬어 준 곳입니다. 이곳 여러 선생님들의 수고와 가르침, 믿고 기다려준 분들이 계시기에 화목한 가정으로 바뀔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도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건강을 되찾았고 책을 좋아하게 되었으며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루하루 기쁨과 자유로움을 느끼며 살고 있어요. 어느새 자신감이 생겨서 사람들을 피하지 않고 먼저 다가가는 저의 모습에 놀라기도 합니다. 남편이 앞으로도 잘 이겨내리라 생각하고 그 옆에 항상 마음사랑병원 치료진이 있어서 든든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구요, 저희처럼 회복을 바라는 더 많은 분들이 오갈 수 있는 마음사랑병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사랑 가족교육과 함께 하며 이 순간에도 회복의 희망을 실천하고 있는 모든 가족분들을 응원합니다. 더불어 환자분들이 하루 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순간이 새로운 시작이다’라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음사랑 가족교육은?

정신질환의 치료 과정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서로의 어려움을 나눔으로써 회복을 향해 나아갈 용기와 힘을 북돋우는 모임입니다.

미래를 보듬어줄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생

글 / 이유란 정신건강 임상심리사

마음사랑병원은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으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춘 정신건강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신건강의학과 환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정신건강을 보듬어 세상을 밝힐 정신건강 간호사 / 임상심리사 / 사회복지사 수련생들의 이야기를 들어 볼까요?



정신건강간호사 수련생 김서정

간호대학을 다니며 나간 실습에서 정신과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관심이 점차 커져 마음사랑병원에 입사하게 되었고, 어느덧 5년이 되어 정신건강간호사 수련을 받을 기회가 왔습니다. 타기관에서 교환수련을 받다 보면 시스템과 치료환경이 많이 다른 것을 느낍니다. 7개의 세분화된 병동이 있는 만큼 환자분들이 증상에 맞춰 치료받는 점, 형식적인 치료와 면담이 아닌 온 마음을 다하는 것, 올해부터 도입된 프로그램 전담 간호사 제도로 구성된 새로운 치료환경, 매일 점심시간이 기다려지는 맛있는 식사까지 어느 부분 하나 빼놓을 것 없이 마음사랑병원 자체가 자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련을 끝까지 잘 마무리하여 왜 정신건강인지, 왜 정신건강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는 정신건강간호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수련생 김부중

전공으로 심리학과 사회복지학을, 대학원에서 임상심리학을 공부한 뒤 관련된 일을 해왔습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심리검사를 통해 그 사람의 내면과 특성에 대해 알아간다는 것이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업무에 임하면서 '사람에 대한 이해'에 부족함을 인지하게 되었고, 이를 위해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수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운이 좋게도 마음사랑병원에서 수련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 정감있는 분위기에서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 깊이 배우가고 있습니다.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수련생 정다운

이전까지는 낯설게만 느껴졌던 정신장애였지만 학부과정 중 듣게 된 임상심리학 강의는 누구나 경험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치료할 수 있는 마음의 병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전문적인 임상심리사가 되어 환자들을 마주하고 싶어 수련을 시작했습니다. 수련 기간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마음사랑병원에서 진행된 첫 신규직원 교육입니다. 각 부서장과 치료진이 교육을 진행하는 모습을 보며,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의료기관이라는 것을 크게 느꼈습니다. 병원에서 주기적으로 진행되는 환자 권익과 서비스 교육은 앞으로 임상심리사로서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하는지 배울 수 있었으며, 병동에서 직접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경험은 심리평가에만 치우치지 않는 임상심리사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귀중한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수련생 김달진

마음사랑병원과 아름다운세상에서 10년간 근무 해왔습니다. 저의 부족한 역량을 키우기 위해 자격증을 취득하고 사회복지사의 길을 걸어왔으나, 스스로 많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나는 환자분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을까?", "내가 하는 면담이 환자분들에게 도움이 될까?" 이러한 질문에 대한 결론은 정신건강 사회복지사 수련이었습니다. 본원에서 수련을 받으며 10년 전 입사할 때 느낀 친절함과 환자분들을 대하는 온정을 다시금 느낄 수 있었고, 더불어 수련생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과 환경, 다양하게 구성된 프로그램들을 토대로 정신건강사회복지사로서의 기틀을 닦아 가고 있습니다. 저의 역량 강화가 당사자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로 제공될 것이라 확신하며, 남은 정신건강 수련 시간을 성실하고 아름답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수련생 권사라

"정신건강 한번 해볼래?" 평소 존경했던 선배에게 진로 고민을 이야기했을 때 들었던 한마디였습니다. 드디어 사명을 발견했다는 생각에 망설임 없이 수련 모집공고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사랑병원에 입사한 첫날, 어딜 봐도 마음이 편한 녹색으로 가득 차 있는 환경, 원내 카페에서 나는 향긋한 와플냄새, 여러 전문가들의 분주한 모습, 새로운 가족을 환영해 주는 팀원들까지, "아! 이곳에 오길 잘했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수련 받기를 고대했지만 퇴근 후에도 쉬지 않고 과제를 해야 할 때, 다른 직업군과 나를 비교할 때, 역량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 때는 결코 만만하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환자분들이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모습은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마음사랑병원에서 정신건강 수련을 받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사랑의 시간으로 바뀌어가는, 전인화교육 30회기 의미

글 / 이해림 중독상담 실장

2014년 6월, 6명의 '전인화 12주 교육' 수료자가 배출된 것을 시작으로 2021년, 30회를 맞이하기까지 우리들에게 회복을 향한 어떤 여정들이 있었는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기독교 국제 금주학교(CITS)에서 진행하는 '전인화교육'은 TFLC(Training For Life Change) 교육으로도 불리며, 교육 목표는 전인격(全人格)의 변화입니다. 구체적으로, 인간의 고귀한 존재 가치를 깨닫게 하여 전인격 강화와 함께 잘못된 습관과 행동과 사고를 바로잡아 근면 성실한 사람이 되게 하며 이타적 헌신(희생과 봉사)자로서 사회에 기여하고 행복한 삶을 살도록 이끌어냅니다.

12주 동안 교육을 통해 인간 가치와 함께 중독물질로부터 완전한 해방을 이루도록 이끄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으며 한 주도 빠지지 않고 12주를 온전히 교육받으면 수료증과 함께 퇴원 이후 사회재활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됩니다. 이 교육을 통해 수료한 환자는 101명에 이르며, 7년이 넘는 시간 동안 회복을 향한 여정을 꾸준히, 그러면서도 치열하게 걸어가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쯤에서 회복의 길을 꾸준히 걸어가고 있는 회복자들의 발자취를 돌아보는 것도 남다른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1기 수료자였던 이진O님은 7년 넘게 회복자로서 당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으며, 자동차 관련 자격증을 5개 넘게 보유하고 현재는 정비기술자로 카센터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자신만의 정비센터를 차려 회복 중인 모든 중독자를 도와주고 싶다는 원대한 꿈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다른 1기 수료자였던 조재O님은 고등 검정고시를 합격하고 사이버대 중독재활 복지학과를 졸업하여 회복을 열망하는 중독자들을 돕기 위한 과정을 성실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입원해 있을 때는 모든 대화마다 욕이 따라붙었고, 얼굴을 찡그리며 매사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한 삶이었다면 회복 이후 동네 주민이 "네가 이렇게 달라진 게 진짜 신기하다.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니다. 술을 안 마시니 동네가 다 조용하다."라며 변화된 모습에 대한 칭찬을 들 때마다 입가에 미소가 번지며 달라진 삶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2기 수료자인 표영O님은 술로 인해 7~8차례의 대형 수술로 지친 몸이 건강해지며 모든 이에게 빛진 마음을 갖겠다며 아름다운 가게에서 7년간 무료봉사를 했습니다. 지금은 모임을 통해 회복의 길을 독려하는 멋진 동역자로 향기 나는 삶을 살고 있으며, 한 번씩 감사함을 담은 편지를 본원 중독센터 치료진에게 전하는 것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3기 수료자인 엄인O님은 회복 후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24번의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면서 중독에서 헤매다 전인화 교육 수료 후 현재는 중독 관련 공부를 하면서 안전하게 회복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60이 넘는 나이도 그의 열정을 가로막지는 못합니다.



16기 수료자인 박차O님은 에너지 넘치는 일상들을 하루도 빼놓지 않고 공유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저 먼 미래를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오늘, 하루하루에 살자'라는 단주모임 슬로건을 실천하고 있을 뿐이라며 여유 있는 환한 웃음을 짓기도 합니다.

그들, 회복자들은 '치료진과 함께라면 반드시 건강하고 달콤한 향기 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며 하나같이 힘주어 말합니다. 이보다 더 많은 회복자들이 오늘도 건강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회복으로 가족들 눈에서 눈물이 멈췄고, 평온함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기에 중독센터 치료진들은 왠지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들어 "이렇게 아름다운 일을 하고 있는 중독센터 치료진들 너무 예쁘고 사랑스럽지요?"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더불어 이 아름다운 세상을 회복자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Beautiful Hospital
우리가 만드는 아름다운 병원

글 / 김현수 총무팀장

환경이 아름다워지면 환자들도 행복감을 느낍니다. 마음사랑병원은 자연 속에서 계절마다 각기 다른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으며, 이를 통해 환자분들의 빠른 회복과 심신의 안정을 돕고 있습니다.

봄이면 아름다운 화초를 심어 병원을 밝게 가꾸고, 여름이면 배수관리를 통해 식물들이 싱그럽게 자랄 수 있도록 해줍니다. 가을과 겨울엔 낙엽과 제설관리를 통해 보다 편안하고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보다 아름다운 환경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총무팀 직원분들을 소개합니다.

송석재 경비원은 고객이 오가는 경비실 주변 구석구석을 내 집과 같이 아름답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놀라운 솜씨로 죽어가던 식물도 살려내며, 계절에 맞게 화초들을 관리합니다. 그리고 강경식 경비원은 야간 경비 업무를 하면서도 날씨에 따라 화초들을 돌보고, 물을 주거나, 수야 주며, 섬세하게 식물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마다 하나씩 심은 작은 모종이 지금은 커다란 꽃동산을 이루고 있습니다. 계절마다 꽃이 피고 지는 것을 보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더 나아가 치유되고 있음을 느낍니다.

두 분을 비롯한 총무팀의 모든 직원분은 아름답고 따뜻한 환경을 조성하여 환자분들이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치유공간으로 만들고자 힘쓰고 있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꽃 향기로 가득한 정원을 우리 손으로 만들어가고 있으며,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는 공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치유 정원

2년 전부터 조성한 치유정원은 다양한 꽃과 식물들이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며, 고객과 환자를 받게 맞이하고 있습니다. 잔잔한 연못의 물소리가 찾는 분들의 마음을 편안해지도록 돕고 있으며, 새들도 쉬어가는 곳으로 환자를 비롯한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는 공간입니다.

본관 정원

화단과 잔디가 조화로운 아담한 정원이며, 가지런히 진열된 사피니아가이국적인 정취를 더하고 있습니다. 벤치아래 철쭉, 소철, 허브, 남천이 어우러져 있는 정원에서 따뜻한 차를 즐긴다면 꽃과 나무에 둘러싸여 자연과 하나가 된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인산관 정원

건물 안쪽에 위치하고 있어 시크릿 가든을 연상하게 하는 비밀스럽지만 아늑한 정원입니다. 다양한 화초와 조경수로 꾸며져 생동감 있는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으며, 병원내부에서 정원을 바라보며 편안함과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힐링 정원

산수국, 조팝나무, 능소화, 망조화, 특히 겨울에는 눈과 함께 어우러진 빨간 낙상홍이 인상적인 공간입니다. 잔디 주변을 소담스럽게 가꾸어 놓아 피크닉 기분을 내기도 좋습니다. 병동과 밀접해 있어 프로그램 공간으로 활용하기도 하며, 환자분들에게 활력을 주는 의미 있는 곳입니다.



하늘 정원

봄에는 목련, 여름에는 보리수, 가을에는 백일홍, 겨울에는 푸른 소나무 등 다양한 조경수가 있어 사계절 동안 자연의 아름다운 색깔을 만끽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화단에는 작지만 다양한 꽃들이 만발하고, 쉬어갈 수 있는 편안한 벤치가 있어 자연을 마음껏 누릴 수 있습니다.

산책로

계절에 따라 옷을 갈아입는 산책길을 걷다 보면 마음의 걱정과 불안을 내려놓게 됩니다. 환자와 직원분들이 산책을 하며 주변의 녹지를 만끽하고, 자연과 하나 되며 지친 마음을 달래는 회복과 치유의 길입니다.



Maeumsarang News



Maeumsarang News

·마음사랑병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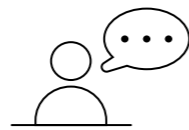


·마음사랑병원·



어버이날 행사 개최

지난 5월 7일, 마음사랑병원에서는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본원 원클리닉 어르신을 모시고 어버이날 감사행사를 진행하였다. 이번 행사는 가족을 대신해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하여 준비하였으며, 30여 명의 어르신이 함께하여 더욱 의미 있었다. 행사에 앞서 어르신의 가슴에 카네이션을 달아주었고 포토존 사진촬영, 케이크 커팅식, 영상편지, 흥겨운 축하무대, 다과시간 등 다양한 구성으로 참석자들은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본원은 매년 어버이날 맞이 행사를 통해 입원해 계신 어르신들께 부모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전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환자의 회복과 안정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행사를 진행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제 23회 마음사랑 정신건강 세미나 개최

지난 6월 9일, 마음사랑병원에서는 '미래를 빼앗긴 아이들, 아동학대'를 주제로 '제 23회 마음사랑 정신건강 세미나'를 개최했다. 최근 아동학대 관련 사건이 연일 보도되면서 아동보호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기에 지역사회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번 세미나는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화상으로 진행 되었으며 200여명의 교육·복지·보건의료·정신건강 유관 기관 종사자, 정신건강수련생, 대학생 등이 참여했다. 본원은 매년 정신건강 현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사회 교육·복지·보건의료·정신건강 종사자들의 역량강화와 환자의 회복을 위해 힘쓰고 있다.

Maeumsarang New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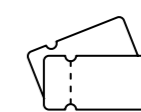
·마음사랑병원·



전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와 업무협약

지난 6월 17일, 마음사랑병원에서는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와 상호 협력 및 사업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도내 외국인의 정신건강상담 및 의료지원 서비스 제공을 통해 지역 내 정신건강의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의 안정과 적응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를 통해 상호 발전에서 더 나아가 지역사회 내 외국인의 정신건강 증진 기여에 앞장설 방침이다. 본원은 협약을 통해 전북 지역 내 외국인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하고 안전하게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마음사랑병원·



'찾아가는 예술극장' 문화예술 공연 진행

지난 6월 17일, 마음사랑병원 문화센터에서는 환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예술극장'을 진행하였다. 이번 공연은 환자에게 질 높은 문화예술 공연 관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본원의 프로그램 일환으로, 클래식과 대중음악으로 구성되었다. 이날 진행된 공연에서는 사전에 신청받은 응원 메시지를 읽어주며 코로나 19로부터 안전한 병원을 만들기 위해 애쓰고 있는 의료진들에게 따뜻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도 했다. 이처럼 본원은 환자에게 수준 높고 다양한 공연을 제공함으로써, 즐거운 병원생활을 통해 재활의지를 고취시키고 회복을 앞당기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Maeumsarang News



Maeumsarang News

·마음사랑병원·



·마음사랑병원·



Maeumsarang News

·마음사랑병원·



·마음사랑병원 소식·



2021 상반기 인산인 및 모범직원 표창

지난 7월 13일, 마음사랑병원 문화센터에서는 2021년 상반기 '인산인(仁山人)'과 '모범직원' 시상식을 진행하였다. '인산인'은 병원 발전에 공헌한 1인에게 상패와 해외연수 기회를 제공하는 포상으로 선정은 간호부장이 선정되었다. 이어서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직원들에게 귀감이 된 '모범직원'에게 상을 수여하였다. 이처럼 본원은 매년 상·하반기와 분기별로 다양한 포상제도를 마련하여 '직원이 행복한 병원'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인산인: 간호부장 신정은
 모범직원상: 구매영양팀 박은선 사원 / 구매영양팀 박찬숙 조리원 / 약제팀 유연심 간호조무사 / 진료지원팀 배윤례 선임 / 총무팀 이정민 사원 / 총무팀 송석재 경비원 / 심신치료센터 최훈석 주임간호사 / 햇살클리닉 김서정 간호사 / 사랑클리닉 박혜인 간호사 / 중독치료센터 박소라 간호사 / 중독치료센터 신동근 보호사 / 마음클리닉 이승훈 보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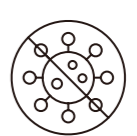
마취하전기자극치료(ECT) 초청교육 진행

지난 7월 14일, 마음사랑병원은 성안드레아병원 전기경련치료센터 정인원 교수를 초빙하여 '정신건강 위기 중재 서비스로서의 한국 전기경련치료의 개발'에 대한 주제로 교육을 진행하였다. 이번 특강에서는 마취하전기자극치료의 효과, 표준화 및 보급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축적된 연구 데이터를 제시하며 치료의 활성화에 본원이 이바지해줄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전기자극치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강의를 마무리 하였다. 본원은 전라북도 최초, 유일하게 마취하 전기 자극 치료를 시행 중이며, 이를 통해 증상이 호전된 환자와 보호자가 높은 만족도와 후기를 전하고 있다.



제 15회 치료비 지원사업으로 따뜻한 나눔 실천

지난 7월 22일, 마음사랑병원에서는 '2021 마음 나누기 & 사랑 더하기' 치료비 지원 사업 전달식을 진행하였다. 치료비 지원 사업은 2007년부터 이어져온 '마음사랑 장학금' 사업의 새로운 이름으로 보다 많은 정신질환자가 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의 폭을 넓혀왔다. 이번 지원 사업은 총 12명이 선발되었으며, 코로나19 방역 지침 준수를 위하여 대면과 비대면으로 나누어 지원금이 전달되었다.



감염병 대응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빈틈없는 방역체계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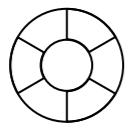
지난 8월 19일, 마음사랑병원에서는 공공의료기관 감염병 대응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였다. 이날 진행된 컨설팅은 본원에 맞는 적절한 감염관리 체계를 수립하여 코로나19를 비롯한 신종감염병 대응 시스템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4차 대유행과 다양한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따라 감염관리 및 방역의 중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으며, 전문가와 함께한 이번 컨설팅을 통하여 다시 한번 '빈틈없는 방역 체계를 구축하고 점검'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Maeumsarang News



Foundation News

Foundation News



신나는 물놀이 '여름아 부탁해'

시설에서는 여름철 무더위를 날려버리고 회원과 종사자의 친목과 화합을 위한 물놀이를 진행하였다. 김제두월노을 체험마을에서 진행된 물놀이는 사전예약을 통해 한 개 단체만 이용하여 코로나19 예방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했다. 무더위 극복 '여름아 부탁해'는 회원들이 직접 준비한 퀴즈 맞추기, 노래자랑, 순발력 게임 등 신나는 이벤트와 함께 진행되었으며, 야외 수영장에서는 충분한 준비 운동 후 튜브타기, 물총 게임, 물장구를 안전하게 즐겼다. 앞으로도 코로나19로 힘겨운 시기를 지혜롭게 극복하고 당사자들의 회복과 재활을 위해 앞장서는 아름다운세상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 회 원 후 기 〉

허OO: 코로나때문에 많이 답답하고 힘들었는데 아름다운세상에서 물놀이를 가게 되어 너무 신났습니다. 실컷놀고 많이 웃을 수 있어서 스트레스가 모두 해소된 느낌이었습니다.
최OO: 더운 날씨 속에 진행된 물놀이가 너무 즐겁고 재미있었어요. 점심으로 먹은 바비큐와 옥수수, 과일 등 음식들도 너무 맛있어서 힐링이 되는 여행이었습니다.



코로나19 심리지원 프로그램 운영

완주군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코로나19 마음 건강사업'을 통해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여성, 노인, 장애인, 소상공인 등 재난 취약계층의 마음을 보듬고자 심리지원 프로그램인 '지금 여기, 마음 휴가 중입니다'를 활발히 운영 중이다. 새로 도입된 명상(MBSR) 프로그램은 스트레스에 건강하게 대응하고, 우울 및 불안 등 감정을 조절하는 마음훈련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화예술 프로그램은 원예치료, 아로마테라피, 주얼리 공예, 음악치료 등 예술과 심리치료를 접목시켜 심리적 안정에 도움을 준다. 센터는 앞으로도 지역사회 내 우울감과 무기력감 등 정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군민들의 마음건강을 위해 다양한 심리지원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며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정신건강 상담으로 유입될 수 있는 상담 창구로서의 역할도 기대된다.



개별학습용 인지훈련 프로그램 '기억작공' 개발

전라북도광역치매센터는 제4차 국가치매관리종합계획의 주요 과제 중 하나인 '전문화된 치매 관리와 돌봄'을 위해 개별학습용 인지훈련 프로그램 <기억작공>을 개발하였다. 기억작공은 문해자와 비문해자로 구분하여 치매 중증도에 따라 대상자를 세분화하여 맞춤형 관리가 가능하도록 개발되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집에서도 인지훈련이 가능할 수 있도록 휴대가 간편한 학습지 형태로 제작되었다. 앞으로도 선제적 치매 예방 및 관리를 위해 도민들이 효과성이 검증된 프로그램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확대 보급해 나갈 예정이다.



동네의원사업과 점프카서비스 운영

정읍시정신건강복지센터 지역사회에 있는 정신질환자들이 정신건강의학과 및 정읍시정신건강복지센터의 진입장벽을 낮춰 꾸준한 정신과 치료를 돕기 위해 원스톱 차량지원의 일환인 '동네의원마음이음사업 점프카서비스'를 시작하게 되었다. 1차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정신질환자 및 신체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병원동행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2020년도 부터 시범사업으로 운영해 본 결과 지역사회 반응도가 높았다. 센터는 심리검사비용(1인당 30만원)과 외래치료비(1인당 3만원)지원을 확대할 것이며, 1차 의료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구축을 통해 연계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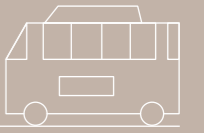


월	내용
1월	연간 가족교육 계획
2월 24일	정신건강의학과 치료기법(온라인 교육)
3월 24일	정신질환의 한의학적 치료(온라인 교육)
4월 28일	혹시 나도 코로나 블루? - 우울증에 대처하기
5월 26일	마음사랑병원 병동별 치료 과정 회복의 희망을 발견하다 - '동료지원가' 활동(낮병원)
6월 23일	중독에서 탈출하기 가족회원 마음 나눔
7월 28일	정신질환과 치료에 대한 이해 마음사랑 긴급지원(구 장학회)
8월	가족교육 돌아보기
9월 29일	소통으로 하나되기(환자-가족간 의사소통) 회복 시기 발표 - '나의 회복' (낮병원)
10월 27일	중독에 대한 이해
11월 24일	정신장애인의 권리와 옹호 정신장애인 인권 영상 시청
12월 22일	마음과 사랑이 만나는 시간 '가족송년회'



마음사랑 가족교육은 가족들이 환자의 질환에 대해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며 제2의 치료자인 가족의 긍정적 기능을 개발·강화하기 위한 교육으로써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진행합니다. 환자 가족 및 정신질환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족교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문의 : 063-240-2122 (사회사업팀 가족교육 담당)



○ 셔틀버스 운행 시간표 : 마음사랑병원을 찾는 모든 방문객은 셔틀버스(낮병원 포함)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노선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7회	8회	9회	10회	11회	12회
병원 출발	08:30	08:40	09:30	10:20	10:45	11:45	12:20	13:30	14:00	14:30	15:30	16:10
소양 (면사무소)												
고려병원 앞												
안골 (따리바게트)												
모래내 (농협)	08:55		09:55		11:10	12:10		13:55		14:55	15:55	
안골 (향연유외과)	09:00		10:00		11:15	12:15		14:00		15:00	16:00	
수환방 병원 앞 (고려병원 건너편)	09:04		10:04		11:19	12:19		14:04		15:04	16:04	
소양 (농협)	09:11		10:11		11:26	12:26		14:11		15:11	16:11	
병원	09:15		10:15		11:30	12:30		14:15		15:15	16:15	
전주역 (웨딩의전당 건너편)		08:55		10:33			12:33		14:13			16:27
건지산 이지음 아파트		08:57		10:35			12:35		14:15			16:30
안디옥 교회 정문		09:00		10:36			12:36		14:16			16:31
전주덕진소방서 옆 (전주시 재활용센터)		09:03		10:37			12:37		14:17			16:32
롯데렌터카 전주지점 (삼성증권 전주지점 옆)		09:10		10:43			12:43		14:23			16:38
고속버스터미널 (텍사스강장 건너편 천변)		09:12		10:44			12:44		14:24			16:41
시외버스터미널 (중앙병원)		09:15		10:46			12:46		14:26			16:43
한국은행 옆 (공간타일도기)		09:20		10:50			12:50		14:30			16:45
모래내 (농협)		09:25		10:55			12:55		14:35			16:50
안골 (향연유외과)		09:28		10:58			12:58		14:38			16:53
복일초등학교 정문 (수협)		없음		11:00			13:00		14:40			없음
대자인 병원 정문 (자인약국)		09:31		11:02			13:02		14:42			16:56
전주역 건너편 (서강재활사)		없음		11:03			13:03		14:43			없음
글다리 (CU 편의점)		09:35		11:07			13:07		14:47			16:58
병원 도착		09:45		11:20			13:20		15:00			17:10

*공휴일은 운행되지 않으며, 토요일은 오전까지 미니순환버스만 운행됩니다. (미니순환버스 : 1, 3, 5, 6, 8, 10, 11, 13회/대형버스 : 2, 4, 7, 9, 12회)

*운행 시간표 및 노선은 바뀔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 : 063-240-2100)

○ 셔틀버스 운행 시간표 (평화동방면)

노선	1회	2회	3회	4회
병원 출발	8:40	10:20	14:15	16:10
슈퍼동 나이트	8:51	10:31	14:26	16:21
아중리 지하보도 (따리바게트)	8:53	10:33	14:28	16:23
완산구 선거관리위원회	8:56	10:36	14:31	16:26
현대자동차 (KT 옆)	9:00	10:40	14:35	16:30
경원동 기업은행	9:04	10:44	14:39	16:34
남문치과	9:06	10:46	14:41	16:36
서서학동 화신당	9:08	10:48	14:43	16:38
평화동 지하보도 (전주농협)	9:10	10:50	14:45	16:40
티파니힐	9:12	10:52	14:47	16:42
광진공작아파트 버스 승강장	9:15	10:55	14:50	16:45
남양향실아파트 버스 승강장	9:18	10:58	14:53	16:48
화산체육관 버스 승강장	9:22	11:02	14:57	16:52
한일도 지하보도	9:25	11:05	15:00	16:55
금암동 우성 밧데리	9:27	11:07	15:02	16:57
전북은행 본점 버스 승강장	9:31	11:11	15:06	17:01
전북대병원 입구 버스 승강장 (금암고물상)	9:34	11:14	15:09	17:04
대자인병원 응급실	9:37	11:17	15:12	17:07
전주역 (서강재활사)	9:39	11:19	15:14	17:09
글다리 (CU 편의점)	9:42	11:22	15:17	17:12
병원 도착	9:50	11:30	15:25	17:20

*토요일, 일요일과 공휴일은 운행하지 않습니다.

○ 노선신설 (용진·봉동방면) - 화/수/목 운행

탑승장소	1회	2회
마음사랑병원	8:30	15:30
용진 대명아파트 (버스승강장)	9:00	15:55
율소리 (전북현대모터스 표지판)	9:05	16:05
둔산리(화산 한우 직판장)	9:20	16:10
NH 삼봉지구(큰 도로변 횡단보도)	9:35	16:25
봉동주공(GS25 버스승강장)	9:45	16:30
용진 마그네다리 (봉동 삼거리 GS25 맞은편)	9:48	16:35
용진 상운길(용두사)	9:50	16:40
용진 상운길(뚝방)	9:55	16:43
용진파출소	10:00	16:45
마음사랑병원	10:15	17:15



당신의 사랑으로 나눔세상을 만들어갑니다.

'마음사랑후원회'는 최상의 의료서비스로 '인간사랑'을 구현하기 위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우 및 보호자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통하여 안정적인 치료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지역사회 정신장애인을 위한 지원을 실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부터 '마음사랑후원회'는 내부 직원 및 외부 후원자 약 600명이 정기적으로 후원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후원회참여방법 (☎마음사랑병원사회사업팀:063-240-2114)

- 정기 후원** CMS 후원신청서 작성 후 직접 지정해 주신 계좌에서 매월 5,000원 이상이 자동이체 되는 방법입니다.
- 비정기후원** 원하시는 금액을 직접 입금하는 방법입니다. (농협: 351-1066-5417-13 마음사랑후원회)
- 물품 후원** 의복, 식품, 도서 및 생활필수품 등 환우에게 도움이 되는 물품을 후원받고 있습니다.

2020년 8월~2021년 1월 자원봉사자 명단

자원봉사자 총 37명

- [생활지원_해어나눔공작소] 신별룡, 소길례, 육기순, 강성자, 설동원, 송준섭 (6명)
- [생활지원_개인자원봉사자] 김현민, 김누리, 남기현, 조영란, 박소미, 이지우, 이근택, 박성규, 임다연, 홍지영 (10명)
- [정서지원_다도] 박정순 (1명)
- [자원봉사자학교_전주대] 강도민, 권경희, 김연경, 이다빈, 곽예랑, 이아진, 최하영, 윤류경, 김유정, 송예지, 송희정, 강성현, 박현지, 최지훈, 곽은빈, 유하현, 원하은, 최문정, 최성연, 이수빈 (20명)

2021년 02월 ~ 2021년 07월 후원자 명단

외부 후원 총 357명

(유)천보그린, (주)내외정보기술, (주)동남의료약품, (주)인스나인, 가재숙, 강경옥, 강경희, 강나루, 강성희, 강수연, 강승민, 강인숙, 강정선, 강찬오, 강화숙(장원우나눔), 강희봉, 강대용, 고병훈, 고소영, 고순화, 곽동호, 곽동훈, 곽태연, 구도형, 권선미, 권용주, 길정호, 김경조(우아식품), 김기봉, 김남일, 김내영, 김대용, 김동렬, 김동철, 김미경, 김복덕, 김서현, 김성수A, 김성수B, 김성숙, 김성순, 김성식, 김성태, 김수빈, 김순희, 김승재, 김언경, 김영광, 김영실, 김영화, 김용문, 김용욱, 김용진, 김원우, 김운정, 김운중, 김은지, 김을수, 김일중, 김정수, 김정원, 김정춘, 김정학, 김정환, 김중국, 김중은, 김지연, 김지우, 김지은, 김진경, 김진형, 김찬욱, 김창현, 김철호, 김충만, 김현기, 김현민, 김현성, 김현자, 김희정, 나의현, 노경찬, 노옥희, 노제훈, 노진성, 노현정, 도윤아름, 동만용, 류명순, 류세나, 류형선, 모은희, 문기영, 문리리, 박경철, 박근영, 박근혁, 박금옥, 박기성, 박문규, 박병섭, 박병준, 박삼례, 박성환, 박상규, 박영근, 박영희, 박요창, 박윤희, 박인경, 박지순, 박정우, 박정은, 박정호, 박지영, 박희희, 박천미, 박현철, 박현경, 박현숙, 박혜빈, 배자영, 배현민, 백경림, 백조아, 백현찬, 변동균, 서경태, 서소현, 서숙연, 서안석, 선옥녀, 선진태, 생백준, 생병주, 생병희, 생윤정, 생정현, 손성순, 손주원, 송병선, 송석주, 송인미, 송주하, 송준호, 송지연, 신명옥, 신영이(어진유통), 신은옥, 신필호, 신희숙, 안미란, 안미영, 안시현, 안정희, 안종석, 안태훈, 안훈규, 양국현, 양명남, 양상근, 양승주, 염규복, 염훈남, 오미화, 오은영, 오은희, 오재천, 오혜진, 왕순임, 용태진, 원경희, 원다혜, 유능한, 유도근, 유수연, 유은선, 유재식(백상정보), 유창균, 유종열, 유해광, 유현희, 유형규, 옥희정, 윤광수, 윤남순, 윤민재, 윤석용, 윤성숙, 윤창수, 윤혜진, 은상봉, 이가은, 이경은, 이기성, 이남숙, 이대환A, 이대환B, 이도규, 이득녕, 이다숙A, 이다숙B, 이민지, 이상고, 이선영, 이성섭, 이성자, 이상철, 이수진, 이순신, 이송철, 이송현, 이연수, 이연숙, 이영우, 이영일, 이영자, 이영희, 이유나, 이은지, 이은희, 이의철(한주상사), 이인재, 이장혁, 이재은, 이재현, 이정덕, 이정숙B, 이정우, 이정은, 이종철, 이준영, 이준호, 이준희, 이지연, 이지영, 이진영, 이창원, 이태형, 이한웅, 이현주, 이형규, 이희규, 이효숙, 이후정, 이희신, 이희진, 임경원, 임태영, 임두수, 임영석, 임용환, 임인서, 임중화, 임지영, 이화신, 이희진, 임경원, 임태영, 임두수, 임영석, 임용환, 임인서, 임중화, 임지영, 임지은, 임창진, 장선호, 장연, 장영진, 장용수, 장유미, 장은옥, 장하인, 장한보, 전북종합박스, 전석원, 전세환, 전은신, 전현순, 전현숙, 정경미, 정다정, 정미란, 정순심, 정순태, 정승현, 정연주, 정영석, 정은누리, 정윤숙, 정은빈, 정진권(보성수신), 정충용, 정해운, 정해운, 정혜경, 조대성, 조명희, 조서연, 조우진, 조우호, 조재익, 조형은, 조훈, 지동현, 진공숙, 진연호, 진영준, 차동훈(서울우유아중보급소), 천창영, 최고은, 최동현, 최상수, 최선미, 최성호, 최수석, 최영식, 최윤경, 최윤규, 최인성, 최인숙, 최철민, 최희은, 최현규, 최현숙, 최혜준, 김스메디칼, 해나규금센터, 해남규(하이푸드), 하해란, 한대진, 한명일, 한성중(주)태중, 한승희, 한시중, 한신혁, 한재근, 한현수, 허미란, 현희성(부귀농협김치), 형명자, 홍상표, 홍선우, 홍선화, 홍진성, 황경진, 황다은, 황병산, 황성, 황철현

내부 후원 총 124명

강경식, 강남인, 강성환, 강애슬, 강원화, 강지은, 고정선, 구우준, 권사라, 권옥희, 권은정, 권정은, 김강호, 김구형, 김달진, 김 만, 김명인, 김서정, 김성의, 김소리, 김연아, 김예은, 김은애A, 김은애B, 김은진, 김인숙, 김정은, 김지태, 김혜인, 김현수, 김현희, 김형태, 김희정, 나설이, 당명일, 박기영, 박민실, 박성환, 박수연, 박용현, 박윤선, 박은선, 박찬숙, 박 현, 박혜인, 배운재, 백철호, 송명재, 송봉용, 신정은, 안서현, 안형숙, 영정류, 오남수, 왕우열, 용태영, 유봉상, 유서연, 유슬기, 유승근, 유연성, 유정우, 유현정, 유혜림, 윤희상, 이근학, 이구현, 이금단, 이민성, 이민정A, 이민정B, 이승연, 이승희, 이윤란, 이은자, 이창호, 이정민, 이정숙A, 이주혁, 이준재, 이혜림, 이현정, 이혜수, 이화자, 이희준, 임덕림, 임솔미, 김해숙, 전대원, 전은지, 전지예, 정경남, 정민기, 정상규, 정은진, 정의성, 정준영, 정혜정, 조승재, 조아라, 조 윤, 조인정, 주진, 천영자, 최강현, 최금철, 최수정, 최희재, 최한재, 최훈석, 하근재, 하영숙, 한영은, 한진희, 함수경, 홍수정, 홍윤미, 홍정숙, 홍정숙, 황수택, 황승연, 박준, 김병배, 서지혜



조기집중치료! 가장 중요합니다!
병이라고 의심되는 순간
바로 치료를 시작하십시오!

당신의 빠른 회복을
마음사랑병원 이 돕겠습니다!

마음사랑병원 급성기 집중치료 심신치료센터

급성기 입원 환자의 다학제적 평가를 통한 초기진단과 치료계획에 의해
약물치료, 정신치료, 인지행동치료 등 전문화된 집중치료를 시행합니다.

환자 중심의 치료환경을 갖춘 급성기 집중치료병동으로
24시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전공의가 상주하고 있으며,
정신건강간호사·정신건강임상심리사·정신건강사회복지사가
신속하고 전문화된 치료를 제공함으로써
환자의 빠른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정실의 확장을 통해 급성기 환자를
더욱 빠르게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